

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현장 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(보도참고)

< '16. 10. 21(금),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>

1. 간담회 개요

□ 일시·장소 : '16. 10. 21(금) 13:50-14:40, 거제 조선업희망센터(거제시 고현동)

□ 참석자

- 구직자 및 재취업자(8): 이○○, 이○○, 권○○, 공○○, 노○○, 강○○, 홍○○, 정○○
- 사업주(2) : (주)동○ 대표(백○○), 삼○○엔티(주) 전무(송○○)
- 관계부처·유관기관(5) : 고용부 장관, 산업부 1차관, 경상남도 행정부지사, 거제시장, 거제조선업 희망센터 소장

2.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

이○○	(52세, 구직자, 창업예정자) ▶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기계설비 반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조선업이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음. 재취업보다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희망센터를 방문하여 창업컨설팅을 받게 되었음 ▶ 창업의 기본인 마케팅, 법인설립 절차, 인허가 신청, 창업자금 신청, 관련교육 수강 등 다양한 컨설팅을 받았고, 지금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, 10월말 경 창업을 앞두고 있음
이○○	(32세, 구직자) ▶ 남편이 조선사 사내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으나, 불황으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임 ▶ 결혼 이후 거제로 내려오면서 출산이나 재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희망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와 편하게 고민을 상담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음 ▶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계획임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많은 퇴직자 가족들이 조선업 희망센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용기를 얻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음
권○○	<p>(28세, 재취업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원경찰을 하다가 조선소 임금이 높다고 하여 배관공으로 전직 하였음. 그러나 적성도 맞지 않고 조선업이 불황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생각하고 희망센터를 방문함 ▶ 취업의지는 강했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, 어떤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잘 몰랐는데 희망센터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음 ▶ 상담과정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으며, 센터 직원의 동행면접 서비스를 받아 운전직으로 재취업 하게 되었음. 급여는 기존 직장보다 조금 작지만 현재 직장에 만족하며 일하고 있음
송○○	<p>(삼△△△티(주) 전무,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사업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조선3사 사외 협력업체로 조선업 불황에 따라 일감이 작년에 비해 절반정도로 줄어 직원들 고용유지에 고민을 많이 하였음 ▶ 7월 통영지청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책을 통해 지원금 상향(일 4.3만원→6만원)된 것을 알게 되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음. 인상된 지원금은 경영 및 근로자들 고용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
백○○	<p>((주)동○ 대표, 긴급경영지원자금 수혜 사업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약 13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나, 조선업 불황으로 갑작스런 경영악화가 발생함. 정부 지원 긴급경영지원자금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▶ 정부에서도 조선업에 대해 금융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
정병팔	<p>(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센터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우조선과 삼성이 연말 연초에 본격적인 고용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▶ 다행이 정부와 지자체가 희망센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. 앞으로도 센터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